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Manuscript Number:** KSRNT18-009

**Manuscript Type:** 특별기고

**Title:** Finding the boundary of harm : Anthropological approach to 'scientific debate' on electronic cigarettes(liquid/cigarette type) and smoking cessation

해로움의 경계선 찾기:  
전자담배(액상형/꺠련형)와 금연의 '과학적 논쟁'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Finding the boundary of harm  
: Anthropological approach to 'scientific debate' on  
electronic cigarettes(liquid/cigarette type) and smoking cessation

[Abstract]

This paper i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scientific debate on the harmful effects of the heated tobacco products after the launch of them in Korea in July 2017. I discussed where and how the 'boundary of pollution' works in the debate over electronic cigarettes(so-called 'liquid/cigarette type') and smoking cessation. First, I discussed which of the cigarettes and smokers is the real target of the tobacco denormalization policy. The recent smoking cessation campaign(ex, 'Smokers' Gab-Jil(=power-trip)) seems to emphasize smokers more harmful than 'harmful cigarettes'. The campaign can be attributed to the fear that the spread of new electronic cigarettes could lead to renormalization of smoking. However, it is contradictory that the cause of pollution is concentrated in smokers rather than tobacco companies and tobacco products. Next, I dealt with whether nicotine or tar is the substance that smokers should escape. I think the following precautions are needed when nicotine is used as a 'harm reduction' policy; the government's fundamental policy attempts and the motivation for smokers to completely quit can be weakened. Third, I dealt with the boundary of pollution that smokers want to overcome through the 'cigarette-type' electronic cigarettes. I discussed that the fact that the new electronic cigarette has a low odor could help smokers to recover the disconnected human relationship due to tobacco denormalization. Finally, I also introduced two major boundaries of pollution (smoking as a working drug and as a means of national reven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anthropology.

Key words: Anthropology, Electronic Cigarette, Smoking cessation, Boundary of pollution, Harm Reduction, Denormalization,

## 1. 서론: 오염의 경계선 찾기

본고는 2017년 7월 ‘컬러형 전자담배’의 한국 출시 이후 불거진 제품의 안정성과 해로움에 대한 과학적 논쟁에 대해서 인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류학적 (anthropologically)’이라 함은 논쟁의 ‘경계선’에 대한 탐구를 뜻한다. 여기서 경계선은 영국 인류학자 더글라스가 제시한 ‘오염’의 경계선이다. 그녀는 한 사회의 오염에 대한 기준(‘경계선’)이 외적 혐오감이나 위생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상징’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본다.(1) 그녀가 ‘식탁위의 신발’로 설명한 오염의 상징성은 이렇다. 아무리 깨끗한 신발이라 할지라도 신발장에 있을 때에만 깨끗하다고 인식될 뿐 식탁과 같이 정해진 경계선을 벗어나 위치할 때는 더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흡연에 대한 낙인적 시선(도덕적 오염)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흡연자의 ‘천국’이라 일컫는 직장, 콜센터가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흡연의 의학적 해로움은 그 여성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와 상관없이 동일해야 함에도, 여성흡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콜센터라는 특정한 공간으로 들어갈 경우 해체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즉,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콜센터는 여성흡연에 대한 ‘오염의 경계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2) 필자가 이와 같은 인류학적 논의를 통해 ‘전자담배와 금연’ 논쟁 속에서 찾고자 하는 오염의 경계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흡연행위와 관련하여 ‘해로움(harm)’의 경계선은 어디인가(담배 그 자체인가? 아니면 흡연자인가)? 둘째, 담배라는 물질과 관련하여 ‘해로움’의 경계선은 어디인가(니코틴(중독성 물질)인가 타르(발암물질)인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해로움’에 대한 두 가지 오염의 경계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을 넘어선 또 다른 경계선 역시 다루어볼 것이다.

## 2. 본론: 오염의 경계선들로 본 전자담배와 금연 논쟁

### 1) 첫 번째 경계선 엿보기: 담배 대 흡연자 “비정상화의 대상은 어디인가”

최근 정부 차원의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금연캠페인(예, “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이 눈에 띈다. 해당 캠페인이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광고 속 흡연자들의 행위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비윤리적 인물로만 비쳐지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흡연행위에 대한 ‘비정상화(혹은 비규범화)(denormal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3) 즉, 더글라스 식으로 흡연행위에 ‘오염’의 상징적 표지(즉, 낙인)를 붙이는 셈이다. 이것은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릴 등)가 한국 출시 이후 흡연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게다. 최신 하이브리드 기기와 함께 다시금 매력적인 행위로 흡연행동이 재정상화(renormalization)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낙인’을 사용해도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미뤄두더라도,(4)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흡연갑질’ 캠페인은 어떠한 해로움을 경계하는 것인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기인가 아니면 그것을 선택한 흡연자의 의식인가? 담배가 경계해야 할 오염원이라면 그것을 방출한 제조사가 낙인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만, ‘흡연갑질’ 캠페인이 향하는 것은 오염원을 소비하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진다. ‘비정상화’ 정책의 입안자는 전자담배 등의 ‘해로움 줄이기(harm reduction)’가 흡연행위의 ‘재정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흡연확산의 오염원으로 신종담배 ‘흡연자’를 지목하여 그들이 ‘해롭다’는 이미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일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즉, 마치 구체적 해로움 줄이기에는 반대하고 상징적 해로움 늘리기에는 찬성하는 것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과거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액상형 전자담배에 흡연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을 때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했던 것이 오늘날 궐련형 전자담배 쪽으로 기존 흡연자들을 마치 ‘토끼몰이’하듯 내몬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한 해로움이 ‘과학적 논쟁’ 속에 혼란한 틈을 타 오염의 책임이 그것을 선택한 흡연자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흡연자의) 어리석음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제조사의) 잔혹함을 탓할 것인가. 과학적 논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혼탁한 경계이다.

### 2) 두 번째 경계선 엿보기: 니코틴 대 타르 “흡연자가 벗어나야 할 중독, 어느 것인가”

이제 앞서 다룬 내용과 다른 측면에서 오염의 경계선을 접근해 보려 한다. 전자담배의 ‘해로움 줄이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오염의 경계로 지목되는 것은 강한 중독성을 특징으로 하는 ‘니코틴’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니코틴 때문에 흡연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타르가 원인이 되어 죽는다”라고 한 러셀의 지적이 자주 명언으로 꼽힌다.(5) 러셀의 말처럼 니코틴의 강력한 중독성이 흡연의 최고 원인이라면, 일반 궐련형 담배에서 타르라는 명확한 암 유발 오염원을 제거한 순수 니코틴 전달 기계로 흡연의 대상을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것이 니코틴마저 끊는 완전 금연으로 가도록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정말 순수한 니코틴만 베이핑(vaping)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과학적 논의는 ‘논쟁’에 부처 놓아도, 최소한 ‘과학기술의 혜택’과 타협하자고 강조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기에

도 다음과 같은 의문이 뒤따른다. 니코틴 역시 벗어날 수 있는 경계선 아닐까? 니코틴은 정말 한 번 오염(중독)되면 절대 탈출할 수 없는 드높은 경계일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니코틴에 쉽게 중독되는 몸은 있을지언정 니코틴 중독이 당연한 몸이란 없다. ‘해로움 줄이기’ 정책의 경우 그것이 주는 과학적 혜택과 타협할 때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시도와 완전금연을 위한 동기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6) 정말 흡연자는 니코틴에서 벗어나 그 이전의 몸으로 돌이갈 수 없는 것인가? 혹시 그들을 니코틴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공급해줘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무리로 보는 것인 아닌까? 그들을 순수한 니코틴 중독만은 편견 없이 인정하자고 주장하며, 그 같은 중독을 초래한 시스템에도 관대해지는 것은 아닌 것일까 반문한다(“non-judgemental of drug use and users, but equally non-judgemental of the system that creates them”).(6)

### 3) 또 다른 경계선 상상하기: 흡연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경계선이란?

꺾련형 전자담배가 확산된 주된 이유로 지목되는 요인이 있다. 담배 냄새다.(7) 그런데, 과연 오직 ‘냄새가 적어서’ 꺾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일까? 아닐지 모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담배가 피우고 싶은 것’일지 모른다. ‘냄새’ 레이더망에 의해 오염의 표식이 붙는 것을 꺼려했을 뿐 진정 원하는 것은 ‘맛난’ 담배일지 모른다. 여기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일반적 이유와 다를 수 있을지 모른다. 즉, 금연을 위해 장난감 같은 ‘액상형’을 택한다면, 흡연을 위해 하이브리드 ‘꺾련형’을 택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악화된’ 냄새를 통해 흡연자가 담배를 즐기면서도 벗어나려한 경계선은 무엇이이었을까? 혹시 흡연갑질에 대한 모욕적 시선의 경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기존 꺾련형 일반담배를 피울 때 단절되었던, 아니 시도조차 꺼려했던 비흡연자와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것이 물론 일말의 눈가림일 수 있다는 자책감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상적 전략의 도구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이 연구된 바 있다(8).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흡연자가 ‘오염의 경계선’으로 인해 ‘단절’된 인간관계를 되찾기 위해 꺾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할 여지는 존재할 것이다. 즉, 흡연의 비정상화 정책이 끊어 놓으려했던 과거의 사회적 관계말이다(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담배 비정상화 정책 등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옛 흡연의 습관(예, 화장실 흡연 등)마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학이 과학적 논쟁에 정체되어 있을 때 담배회사는 인문학적 접근을 선택한 것인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흡연자의 인간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비정상화 정책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발휘되길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 4) 과학적 논쟁이 간과한 흡연의 경계선들: 인류학의 흡연지형학

마지막으로, 의학/보건학 영역이 아닌 인류학의 영역에서 목격한 흡연의 지형학, 즉, 큰 경계선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하나는 ‘드럭푸드(drug food)’(혹은 워킹드럭(working drug))로서의 담배에 대한 언급이다. 인류학자 민츠는 설탕, 차, 초콜릿, 알코올과 함께 담배를 노동의 고됨과 배고픔을 잠시 잊도록 해주는 것으로 보았다.(9) 같은 맥락에서 담배는 노동자가 원래 능력보다 더 오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오래된 매개체.(10, 11) 자본주의적 생산체계 속 지독한 압박과 권태로부터 짧은 화학적 휴식을 제공하는 도구로 소개되었다.(12) 다른 하나는 ‘세입수단’으로서의 담배에 대한 소개다. 인류학자 베어

및 싱어는 담배가 중독성 마약이 아닌 ‘합법적 중독’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진 이유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12) 즉, 17세기 말 전 유럽에서 흡연이 교회와 지배계층의 도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계기는 ‘도덕적 혁명’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담배를 식민지 정책을 위한 경제적 토대이자 ‘새로운 세입수단’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3) 이를 가리켜 『The Cigarette Century』의 저자인 하버드 과학사학자 브랜트는 이제 ‘국가’마저 담배에 의존성이 생겼음을 지적한다.(14) 정리하면, 인류학이 그려낸 흡연의 지도에서 담배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경계선(노동의 도구로서)과 통치자와 통치대상 사이의 경계선(세입의 도구로서)에서 철조망처럼-마치 한 번 갇힌 흡연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놓여 있다. 여기서, 금연이 중독의 영역을 넘어 담배 세금 영역으로 경계를 확장한다면 이것은 의학이 아닌 ‘보건행정’의 몫일지 모른다.

### 3. 결론: 해롭지 않아도 오(염)물(질)이 되다

지금까지 전자담배(액상형/꺄련형)의 해로움에 대한 과학적 논쟁을 ‘오염의 경계선’이라는 인류학적 시선을 중심으로 다루어보았다. 필자는 이를 통해 ‘담배는 나쁘다’라는 명제와 ‘흡연자는 나쁘다’라는 명제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려 했다. 왜냐하면, 전자는 과학적 입증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비과학적 선입견이 증폭될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비정상화 정책’을 계획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흡연자의 실질적인 혜택(타르 제거)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고려해야할 경계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과학적 혜택과 타협할 때 흡연자가 니코틴 등에 중독되게 된 거시적 요인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오염의 경계선, 즉 낙인을 보건정책에 활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이라는 큰 틀에서의 이해득실을 고려할 것이다. 그렇지만, 낙인 자체는 ‘중도’를 설정하기 어렵다. “얼마나 지나쳐야 지나쳤다 말할 수 있는가?”(How far is too far?)라는 질문에 현답을 하기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15) ‘가난’은 비정상인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인가? 여기에 답하라고 하면 ‘흡연’에 그러했듯 선뜻 ‘그렇다’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난하면 건강이 더 나쁘지, 그리고 흡연이 건강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인지에 답하라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때 가난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흡연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도 상기해보자. 그렇다면, 흡연을 ‘비정상화’할수록 가장 흡연율이 높은 ‘가난한’ 계층에게 흡연이라는 ‘낙인’이 몰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에 덧붙인 오염의 낙인은 가난한 이들에게 흡연을 해도 마땅한 존재로 선입견을 갖게 만들지 모른다. 실제 흡연 여부는 상관없이도 말이다. (그들은) 해롭지 않아도 오(염)물(질)이 될 수 있다.



#### 4. 감사의 글

본고는 2018년 11월 2일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개최된 ‘금연세션-금연과 전자담배’에서 발표된 토론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5. 참고문헌

1. Douglas M.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1966).
2. Kim KW. Making a Polluted Space and Body: Labor Control in a Call Center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Stigma of Female Smoking. Korean Journal of Cultural Anthropology. 2015; 48(2): 45-87.
3. Bell K, Salmon A, Bowers M, Bell J, McCullough L. Smoking, stigma and tobacco 'denormalization': Further reflections on the use of stigma as a public health tool. A commentary on Social Science & Medicine's Stigma,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Health Special Issue (67: 3). Social science & medicine. 2010; 70(6): 795-799.
4. Bayer R. Stigma and the ethics of public health: Not can we but should w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8; 6: 463-472.
5. Russell MA. Low-tar medium-nicotine cigarettes: a new approach to safer smoking. BMJ. 1976; 1: 1430-1433.
6. Roe G. Harm reduction as paradigm: Is better than bad good enough? The origins of harm reduction. Critical Public Health. 2005; 15(3): 243-250.
7. Kim JY, Yu HJ, Lee SK, Paek YJ. Awareness, experience and prevalence of heated tobacco product, IQOS, among young Korean adults. Tobacco control. 2018; 27(1): s74-s77.
8. Thirlway F. Everyday tactics in local moral worlds: E-cigarette practices in a working-class area of the UK. Social science & medicine . 2016; 170: 106-113.
9. Mintz S. Sweetness and power: the place of sugar in world history. New York: Viking; 1986.
10. Jankowiak W, Bradburd D. Using drug foods to capture and enhance labor performance: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urrent Anthropology. 1996; 37(4): 717-720.
11. Jankowiak W, Bradburd D. Drugs, Desire, and European Expansion. In: William Jankowiak and Daniel Bradburd, editors. Drugs, Labor, and Colonial Expansion. Tucson,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3. p.3-30.
12. Baer H, Singer M, Susser I. Medical anthropology and the world system. Santa Barbara, California: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7.

13. Best J. Economic Interests and the Vindication of Deviance: Tobacco in Seventeenth Century Europe. *The Sociological Quarterly*. 1979; 20(2): 171-182.

14. Brandt AM. *The Cigarette Century: The Rise, Fall, and Deadly Persistence of the Product That Defined America: A Cultural History of Smoking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Basic Books; 2007.

15. Williamson L, Thom B, Stimson GV, Uhl A. Stigma as a public health tool: Implications for health promotion and citizen involv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2014; 25(3): 334-335.